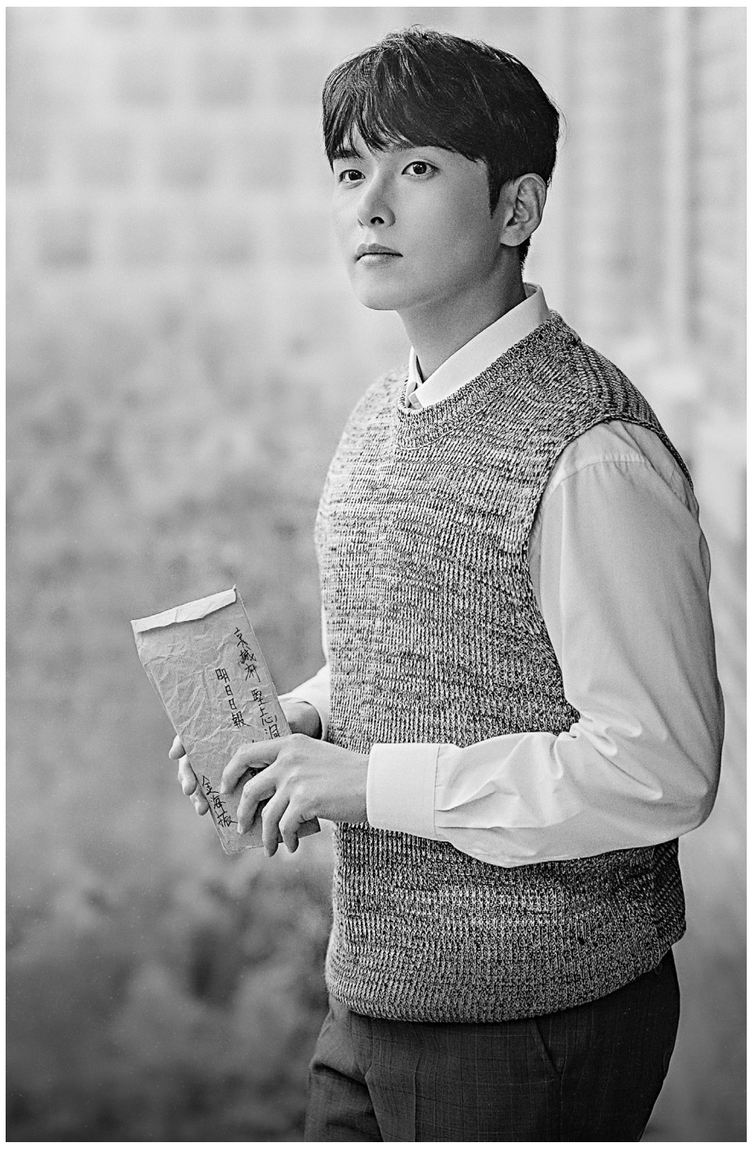
“처음으로 메소드 경험하게 한 작품”

뮤지컬 ‘팬레터’서 정세훈 역 연기한 려욱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 없이 봐줬으면”



뮤지컬 ‘팬레터’ 세훈 역 맡은 려욱. /라이브(주) 제공

뮤지컬 ‘팬레터’ 주인공 정세훈은 연기하기 꽤 까다로운 역할이다.

열아홉 살 소년의 순수하고도 절절한 사랑을 섬세하게 연기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상대가 남자이기까지 하다.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팬레터’는 이상, 김유정 등으로 구성된 문인 모임인 구인회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세훈은 천재 작가 김해진을 동경한 나머지 자신을 여자 작가 지망생 히카루라 속이고 편지를 주고받는 인물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히카루와 사랑에 빠진 해진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를 번번이 놓친다.

지난달 개막한 사연에서 세훈 역을 연기하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려욱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역을 통해 처음으로 메소드를 경험했다”며 “너무 깊게 몰입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울었다”고 했다.

“처음엔 부담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커서 여유로운 동료들과 달리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뭔가 억지로 스며들려고 발악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함께하는 배우분들은 제가 세훈 역에 무척 어울린다면서 ‘왜 이제야 왔니?’라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캐릭터에 빠져 살다 보니 MBTI(성격유형검사)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차분한 세훈의 성격과 닮아간 것이다.

자기 역할 뿐만 아니라 해진을 비롯한 칠인회 멤버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허한 기분도 든다”고 했다.

김태형 연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려욱을 세훈 역으로 점찍어놨다고 한다. 려욱도 당시 이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30대인 그가 한참이나 나이가 어린 10대를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세훈은 마냥 10대가 아닌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이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불안한 10대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노하우와 경험도 쌓였고요.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이 10대 역을 잘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목소리 또한 장점이지 않을까요. 하하.”

슈퍼주니어의 메인보컬인 그는 소년 같은 바르고 고운 목소리가 돋보인다. ‘팬레터’에서도 다양한 넘버를 통해 세훈의 캐릭터를 드러낸다.

‘눈물이 나’에서는 꿈에 그리던 해진을 만나 한껏 설레는 마음을 노래하고, ‘거짓말이 아니야’로는 또 다른 인격인 히카루를 소환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넘버에 따라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 관객의 몰입을 높인다.

려욱은 넘버 가사에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며 웃었다.

2011년 첫 작품 ‘늑대의 유혹’을 선보인 려욱은 지난해 뮤지컬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그룹 활동 중간중간 ‘여신님이 보고 계셔’, ‘아가사’, ‘광염소나타’, ‘메리셸리’ 등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았다.

그는 “공연 직전 대사를 다 읽고 노래들도 다 부른 뒤에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똑같다”면서도 “다만 각각의 무대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아이돌의 뮤지컬 진출에 대한 편견은 그대로인 듯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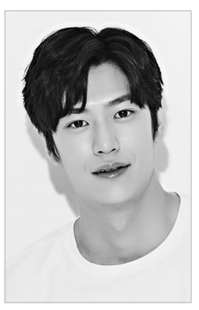
“제 부모님께서도 ‘가수치곤 잘했네’, ‘노래 잘하는 건 알았는데 연기도 잘하네’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뮤지컬 무대에 설 때만큼은 아이돌이라는 틀을 벗어놓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슈퍼주니어는 제 가장 큰 프라이드고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팬레터’ 공연이 끝나면 슈퍼주니어 활동에 들어갔다가 다시 뮤지컬 무대로 돌아올 예정이다.

“최근 본 댓글 중에 려욱이 연기나 노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감동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것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관객이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게 좋은 배우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관객을 납득시키는 배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연합뉴스

나인우 ‘1박 2일’ 고정멤버 합류

김선호 빈자리 채워…6인 체제 복귀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배우 나인우(사진)가 새로운 고정 멤버로 합류한다.

‘1박 2일’ 측은 “나인우가 고정 출연을 확정해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인우는 지난해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출연 이후 KBS 연기대상 2관왕을 수상한 배우로, 최근 엉뚱한 반전 매력으로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1박 2일’을 연출하는 방글이 PD는 “나인우의 합류로 프로그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려고 한다”며 “예능 초보 캐릭터가 주는 신선함과 20대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막내의 합류로 기존 멤버들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나인우가 기존 멤버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고정 멤버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딘딘, 라비 등 5인 체제를 유지해 온 ‘1박 2일’은 나인우의 합류로 6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1박 2일’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디즈니+ ‘너와나의 경찰수업’ /디즈니+ 제공

‘좀비물 vs 로맨스’ 새해 첫 K-드라마 대결

넷플릭스·디즈니+ 콘텐츠 경쟁 본격화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아성을 쌓은 넷플릭스와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디즈니+의 새해 첫 K-드라마 대결은 좀비물과 청춘 로맨스다.

25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는 26일 청춘 로맨스 ‘너와나의 경찰수업’을, 넷플릭스는 이를 뒤인 28일 학교 좀비물인 ‘지금 우리 학교는’을 공개한다.

‘너와나의 경찰수업’은 지난해 11월 국내 상륙한 디즈니+가 내놓는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다.

‘너와나의 경찰수업’은 경찰대학을 배경으로 청춘들의 사랑과 도전을 담은 드라마로 강다니엘의 연기 데뷔작이다. 강다니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청춘 위승현으로 분해 고은강 역을 맡은 채수빈과 호흡을 맞춘다.

넷플릭스가 새해 첫 작품으로 공개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그리는 장르물이다.

‘킹덤’으로 한복 입은 좀비를 탄생시킨 넷플릭스가 학교를 배경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좀비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다수의 살상 장면 등으로 폭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올해 첫 작품 대결을 시작으로 한국 콘텐츠 경쟁을 본격화한다.

디즈니+는 다음 달 16일에는 인기 드라마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차기작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그리드’ 공개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SBS 예능 ‘런닝맨’ 스핀오프 이외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었던 디즈니+가 한 달에 한 편씩 한국 드라마 2편을 연달아 공개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넷플릭스는 올해 라인업을 공개하며 ‘지금 우리 학교는’을 포함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25개 이상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수 주연의 드라마 ‘소년 심판’, 스페인 인기 드라마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 쟁쟁한 기대작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디즈니+는 가족 단위 시청자가 좋아하는 어린이용이나 마블 작품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2030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인기가 많은 로맨스 장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은 단순한 좀비물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체제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내놓는 작품은 한국 시청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그 이상의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대구 추어탕·나주 곰탕·부안 순댓국집

세월 이겨낸 ‘노포의 비결’

KBS 설 특집 ‘한국인의 오래된 밥집’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식당 수 30만 개. 세계에서 식당이 제일 많지만 그만큼 망하는 식당도 많은, 식당의 수명이 짧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틴 식당이 있다. 고단한 현대사 속에서 사장과 직원, 그리고 단골손님들이 함께 나이 들어온 공간, 바로 노포(老鋪)다.

KBS 1TV가 한국인들이 사랑한 오래된 식당에서 음식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설 특집 ‘한국인의 오래된 밥집’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오후 7시20분 방송한다.

1부 주인공은 66년 전통 대구 추어탕집 차상남 사장. 1957년 어머니와 함께 추어탕집을 연 차 사장은 청방배추와 미꾸라지를 넣어 끓이는 경상도식 추어탕 단 하나로 가게를 찾는 단골들을 맞는다.

2부는 나주 곰탕집 길형선 사장이 113년간 곰탕집을 이어온 철학을 전한다. 맛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라고 믿는 길 사장은 매일 새벽 2시에 출근해 고기 등 재료들을 확인하고,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재료들은 가차 없이 돌려보낸다. 질 좋은 고기를 포기할 수 없어 택배, 프랜차이즈, 홈쇼핑 판매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3부에서 소개하는 전북 부안 순댓국집 채영석 2대 사장은 전통 방식으로 피순대를 만들고, 장작불로 순댓국을 끓여낸다. 장작을 직접 쪼개는 일이 여간 고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가게를 열 때부터 고집해 온 방식을 고수하며 순댓국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26일 (음력 12월 24일)

子 48년생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60년생 권력과 재력이 함께 찾아온다. 72년생 천하에 명성을 크게 떨친다. 84년생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丑 49년생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61년생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73년생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 85년생 안 될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寅 50년생 합리적 이유 없는 호의는 베풀지 말라. 6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74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86년생 모든 일이 순탄한 길일이다.

卯 51년생 마음가는대로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 63년생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75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7년생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된다.

辰 52년생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64년생 다된 밥에 재 뿌린다. 76년생 배신수가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 88년생 구설수가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巳 41년생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 53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65년생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77년생 윗사람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

午 42년생 하나를 주면 둘을 얻는다. 54년생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66년생 오랜 답답함이 풀린다. 78년생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걱정하지 말라.

未 43년생 골칫거리가 저절로 해결된다. 55년생 일단 시작만 하면 그럭저럭 진행된다. 67년생 번민과 불안이 가득하다. 79년생 행운이 따르는 좋은 날이다.

申 44년생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56년생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한 순간이다. 68년생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80년생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酉 45년생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57년생 앞이 캄캄하니 매사에 조심하라. 69년생 수고는 많지만 실속이 없다. 8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戌 46년생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58년생 엎친 곳에 덮친 격이다. 70년생 직장에서 좌충우돌하는 힘겨운 날이다. 82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亥 47년생 외출을 삼가고 낙상을 조심하라. 59년생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71년생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83년생 노력에 상응한 결실을 얻는다.